

장경호 거사 32주기 추모법회

대원정사서 봉행...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등 300여명 참석



대원 장경호 거사 32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는 9월 2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32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제강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는 1967년 불서보급사를 설립해 문서교포를 시작했으며, 70년에는 대원정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전형을 선보였다 또 불교계 최초의 교양

대학인 대원불교대학교와 신행단체인 한국불교대원회, 대한불교진흥원 등을 설립하며 한국불교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다. 추모대법회에는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권오현 前 불교방송 상무,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영일/김동,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영통사 돌출 발언 물의 김규철 대표 공개 사과

우란불절을 맞아 지난 8월 25일 개성 영통사에서 봉행된 '백중 천도대법회' 당시 축사를 하면서 돌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남북 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가 서면을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9월 4일 (사)영통포럼으로 보낸 해명자료용 통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예고 없이 남북 간 약속이 못한 예외적인 발언으로 주최측과 북측 참석자들에게 당혹감을 갖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개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새바람 부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74차 임시중앙종회 개최

9월 5일 속개된 조계종 제174차 임시중앙종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을 처리하자 몇몇 다선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했다. 14개 종법 제·개정안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시회회를 조기종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장적 스님은 "처리해야 할 종법 제·개정안이 산적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오, 성호 스님 등 초선의원들도 동참했다. 결국 임시회는 상정된 종법 제·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승가의 무소유 원칙을 법으로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이라는 육동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전 중앙종회에서 몇몇 다선의원들이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신선한 반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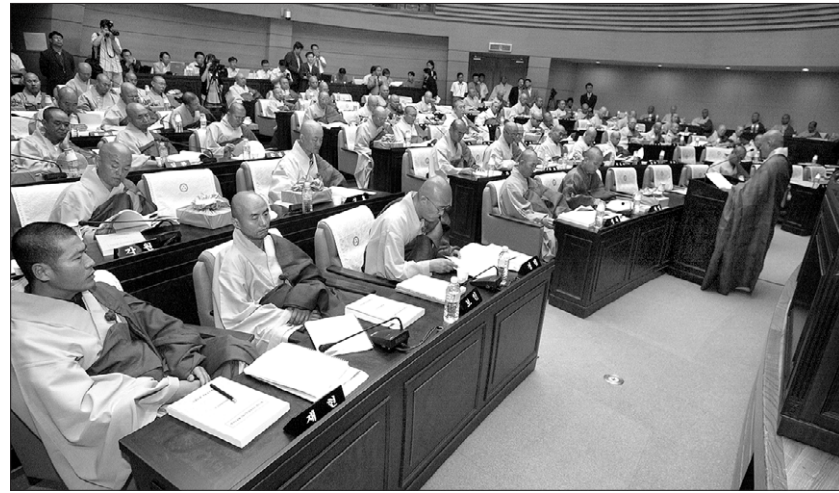
△승려법 개정안=승가는 무소유가 원칙이다. 그러나 각종 보시금 등을 통해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스님이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을 두고 세속의 가족이나 문도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스님이 환속·제직·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삼보장제 유실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30조 2항을 신설해 "스님은 종단의 공익과 종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스님이 환속, 제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이 규정의 귀속을 위해 스님은 구족계수계시와 이후 매 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 제직, 사망했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법진 스님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종단이 앞으로 희망 있다는 증거"라며 "세부적인 것들은 종령 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무원법 개정안=이번 종회에서 '개악'이라고 비난받았던 종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종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



이번 종회는 몇몇 다선의원들에 의해 좌우되던 예년의 관행을 벗고 초선의원을 중심으로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조선 의원들, 소수 다선의원의 '좌지우지 분위기'에 제동 승가 무소유 원칙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 통과 큰 소득

으로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벌지배(살인·강도·절도·간통)으로 국가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횡령 및 전용에 의한 사기죄를 지어도 종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

△9개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이월=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당해 교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갖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당해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 교구에서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승려법·종무원법·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분담금부예관련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은 차기 종회에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의사진행 미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가 부결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만장일치 추대=한편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보성 스님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했다.

무진장(직할교구)·해정(직할교구)·정관(범어사)·종허(관음사), 도원(동화사), 녹원(직지사), 현성(직할교구)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정년 스님(양양 낙산사 주지)을 종림학교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초심회계위원으로 재원·경성·종열·정만·현각·선법 스님을, 재심회계위원으로 성우·성타·성덕·해담·진구 스님을 선출했다. 해자·법해·여연·돈무·청우 스님은 소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해정·보성·고산·인환·월주·종진·설정·지성·무관 스님을,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찬·인각·현목·영진·신룡·영일·법장·현종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에 일문·진화·선문 스님, 교육분과에 성직·돈관·장적 스님, 포교분과에 주경·종성·보인 스님, 사회분과에 학담·영담·태연 스님, 재정분과에 보원·법광·재현 스님, 호법분과에 무자·종호·정광 스님, 법제분과에 광조·장명·성호 스님, 의장단에 해오·선광·성록 스님으로 불기 2551년도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진각종 총금강회 연합 산행대회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원당)가 창종 6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충남 공주 계룡산에서 총금강회 연합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총금강회는 9월 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행사로 △10월 13일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7일 제1회 연합 산행대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이밖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와 연계해 11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족과 이웃제도' 확대 실시 등을 하반기 중점 행사로 선정했다.

김주일 기자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계사 일대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2일 오후 4시 30분 신계사 부처님 봉안 및 점안식을 시작으로, 13일 오전 9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13일 오후 1시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대응보전 외 11개 전각과 삼층석탑을 복원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무원 기획실은 중앙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불교정책기획단(단장 기획실장 승원, 허경만 이사장)'을 구성해 환경생태, 불교콘텐츠, 불교미디어 등 9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9월말까지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 배너(게시판)를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9월말까지.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엘씨)

奉 道元堂雨華大宗師 열반 31주 기일(法脈：鏡虛-慧月-雲峰-雨華) 羅州 多寶寺 掛佛(寶物1343號) 展示水陸無遮平等大齋 行

수륙재란 무엇인가? 水陸緣起를 말하자면, 하루는 梁武帝가 法雲殿에 거처할 때 神僧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六道四生の 고통이 무량하거늘 어찌 水陸齋를 베풀어서 法界舍靈을 廣濟하지 않는가 모든 功德中에 이것이 第一이니라."하니, 꿈을 깬 후 奇異하다고 생각한 양제가 다음날 승려들을 불러 모아 하문한 즉,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오직 誌公法師가 무제에게 말하기를 "佛經을 널리 열람하면 반드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하여 大藏經을 범문전에 쌓아놓고 주야로 열람하여, 佛說救護緣起餓鬼陀羅尼經과 佛說面餓鬼神呪經을 발견하였으니, 무제가 이 경을 의지하여 3년에 걸쳐서 水陸儀文을 自撰完成하고 夜時를 택하여 佛前に 고하여 말하기를 "이 儀文의 理趣가 聖凡에 합당하면 절을 올리는 동안에 燈燭이 스스로 켜지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대로 어렵게 해 주십시오" 하며 한번 절을 하니, 등축이 모두 켜지고 두 번 절하니 宮殿이 진동하고 세 번 절하니 天上에서 四花가 눈처럼 내렸다. 이에 무제가 감격하여 金山寺에서 齋를 設하고 僧侶律師에게 그 文義를 宣讀케 하여 고통받고 있는 六道四生の 衆生을 제도하였던 것이 그 유례이다.

- ◆ 수륙재일 : 2007년 10월 1일 (양력) 우화큰스님 열반기재일
- ◆ 장소·일정 : 다보사 대웅전 앞, 7일간 지장기도 화향당일 수륙재의식 오전10시~오후5시
- ◆ 증명법사 : 지종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의식집전 : 수진스님 (용화사 주지)외 6인
- ◆ 총도감 : 지검스님(다보사 주지)
- ◆ 동참방법 : 설판재자(생축·망축포함) 50만원, 일반 : 생축 1인당 1만원, 망축 1위당 1만원
- ◆ 입금방법 : 농협 637013-51-055923 다보사, 우체국 500298-01-005544 다보사
- ◆ 문의 : ☎ 061)334-4201 / 팩스 : 061)334-4202 주소 : 전남 나주시 경현동 629번지

나주 금성산 다보사 주지 지검 심적 드림